

죽음의 서사와 삶에 대한 염원

- 《太平廣記·報應篇·金剛經》을 중심으로 -

강 종 임*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金剛經》에 대한 대중적 믿음 |
| II. 삶과 죽음의 경계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과 신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유한성’일 것이다. 어느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있게 된 삶,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으로 사라져가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삶은 곧 죽음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¹⁾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나, 인간에 대한 담론에서 죽음이 빠질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받아들여야 할 한계 상황이기에 인간 실존의 문제이다. 그러나 유한적 존재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은 상상이 난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해석 또는 그에 대한 의미 부여는 전적으로 관념의 소산이 된다.

* 동국대학교 경주 글로벌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교수.

1) 김현·김월희, 《무엇이 좋은 삶인가》, 서울: 민음사, 2020, 318~319쪽 참조.

그와 더불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비극의 절정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로 인해 인간은 다양한 가능성을 품게 된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경험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이미지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결단코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이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 건강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과정이 된다.

모든 종교는 바로 죽음을 모티브로 죽음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죽음은 참으로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²⁾ 우리가 중국의 志怪小說 속에서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죽음이나 사후 세계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록해 왔다. 물론 그 시작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인식의 흐름이 기이한 일들을 기록한다는 뜻의 지괴 장르를 통해 구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괴의 발생은 동한 말의 혼란으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민생이 피폐해지면서 초래된 복합적인 사회 현상과 관련된다. 난세를 살아야했던 사람들은 隱逸과 생명의 보전, 服藥求仙, 혹은 내세를 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비현실적 세계를 상상하고 형상화하는 일은 지난한 현실에서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은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무한한 상상이 펼쳐지는 위진남북조의 지괴소설집인 《搜神記》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晉書》에서는 干寶가 생사와 관련된 일에 느낀 바가 있어 《搜神記》를 지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돌아가신 부친의 총애를 받던 여종이 무덤 속에서 10년간이나 살아있었다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형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깨어나 천지간의 귀신을 본 일을 말해준 것이다.³⁾ 간보는 자신이 경험한 일하기에 그 두

2) 이필원, 〈초기불교의 임종관 고찰〉, 《신문화연구》 제14집, 2013, 156쪽.

사건의 神異함에 대한 믿음을 고백(足以發明神道之不誣也)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담담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났던 것인지, 혹은 떠도는 가담항설에 자신의 필체를 더해 가공한 것인지 의심할 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간보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그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확신에 차있기 때문이다. 특히 죽음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자의 이야기는 간보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되면서 이것은 죽음을 극복하는데 일말의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종교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 실제로 지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일찍부터 논의된 바가 있다.

소승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점차 유행하게 되었다. 이 때 귀신의 일을 과장하여 말하고 靈異함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쑤에서 隋 나라에 이르기까지 특히 귀신지괴를 다룬 책들이 많았다. …… 대체로 당시에는 幽冥이 비록 다른 길이지만 사람과 귀신이 모두 실제로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인한 일들을 서술하는 것과 일상적인 인간사를 기재하는 모두 진실로 망령되지 않는다고 여겼다.⁴⁾

여기에는 불교가 유입될 당시 지괴 장르가 흥성했던 종교적 배경이 잘 나타나 있다. 삶과 죽음, 사람과 귀신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신앙으로 승격될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이 이미 조성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한 초기에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러 불교와 反불교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대립은 곧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는 불교의 승리로 정리된다.⁵⁾ 불교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번성하여 북송(960~

3) 房玄齡 等撰, 《晉書》 卷82 〈干寶傳〉, 北京: 中華書局, 1993, 2149~2150쪽 참조.

4) 魯迅, 《中國小說史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24쪽.

5) 任啓愈, 전택원 역, 《中國哲學史》, 서울: 까치, 1990, 226~227쪽 참조.

1127)까지 약 900년 동안 중국 사상계를 장악하며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⁶⁾

본고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초기 형성된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太平廣記·報應》 《금강경》 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평광기》 권102~권108에는 《금강경》과 관련된 103개 조목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것들의 출전은 《報應記》·《廣異記》·《酉陽雜俎》·《法苑珠林》 등 대부분 唐代의 사대부 문인이나 고승에 의해 편찬된 지괴전기 소설집으로 그 시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 이 문헌들 속에 수록된 다양한 이야기들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와 사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는지 추론하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금강경》의 응험을 다룬 103개 조목의 이야기 가운데 특히 죽음으로부터의 소생을 모티프로 한 32개 조목의 이야기에 주목할 것이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국 고대 서사 작품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臨死체험(Near Death Experience)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의 삶 가까이 존재한다.⁷⁾ 이러한 경험은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며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경험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불가사의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회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대할 때 그토록 불가사의한 사건이 정말 존재했는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

6) 자현, 《자현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 서울: 불광출판사, 2018, 303쪽.

7) 임사체험은 죽음의 갈림길로의 체험. 죽어서 직면하고, 저 세상과 이 세상과의 경계를 헤매는 체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임사체험은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5%, 독일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는 인구의 4% 정도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약 18% 정도가 임사 체험을 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 외에 학자들이 수집한 사례들만 해도 이미 수천 건이 넘으니, 임사체험은 더 이상 드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성훈, 《사람을 움직이는 100가지 심리법칙》, 서울: 케이앤케이, 2011, 309~310쪽.)

라, 현재의 삶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서사 담론은 종교적, 윤리적 가치를 담아내는 기제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이야기들 속에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자신의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금강경》이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금강경》을 신봉하면서 겪게 되는 영험함을 기록하여 강한 종교적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금강경》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금강경》에 부여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삶과 죽음의 경계

많은 종교의 교리에는 죽음 이후에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살아있을 때의 언행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죽음 이후에 좋은 곳(극락 또는 천국)과 나쁜 곳(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결과론적인 教義를 신앙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두 곳에 대한 선택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오로지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교리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 종교를 신앙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현세의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갈구한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는 우리 속담이 인간의 그러한 욕망은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가 인간의 이러한 욕망을 무시하고 보다 나은 내세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교리만으로 인간을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 역시도 인간의 이러한 욕망을 고려하면서 신앙을 강화하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수명의 연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일이다. 불교가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고대 중국에서는 이것을 ‘陰德’이라는 관

념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켰다. 음덕은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베푸는 덕행을 의미한다. 이런 음덕을 쌓으면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관념은 오랜 시간 중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음덕의 중요성은 儒佛道の 종교적 차이를 뛰어넘어 고대 중국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 여느 신앙에 못지않게 하나의 굳건한 믿음이 되었다.⁸⁾ 또한 이러한 관념은 유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勸善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희망과 함께 현세의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태평광기·보응》에 수록된 《금강경》 편이 그 사례를 보여준다. 거기에 《금강경》을 독송함으로 인해 사람이 화를 피하게 되었다거나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거나 죄업이 소멸되고 복을 받게 되었다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하는 등의 이야기 103조목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부활,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32조목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591년 종5품 태부시(大府寺)丞을 지낸 趙文昌의 고사가 대표적인 이야기로 손꼽힌다.

수나라 개황 11년 大府寺의丞인 조문창이 갑작스레 죽었다. 그런데 심장만은 약간의 온기가 남아 있었기에 집안사람들이 감히 염을 할 수가 없었다. 후에 그가 살아나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막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데리고 염라대왕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염라대왕이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일평생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집이 가난하여 공덕을 쌓을 만한 여력은 없었지만 오로지 《金剛般若經》을 믿고 외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칭찬했다.

“참으로 훌륭하오! 그대는 이미 《般若經》을 믿은 것만으로도 그 공적

8) 강종임, <《夢占逸旨》에 드러난 壽命 인식>, 《中國學》 제74집, 50쪽 참조.

이 자못 크오. 〈후략〉”⁹⁾

이 이야기의 결말만을 보면 《금강경》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지 불교의 《금강경》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죽음과 관련된 중국 고대의 관념들이 뒤섞여 있다. 먼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죽음으로부터 소생한 사람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죽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심장의 온기는 복선이자 그가 소생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다. 이와 같은 생각의 근간에는 영혼불멸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산 자의 입장에서 망자는 결코 소멸된 것이 아니고 단지 생존 방식이 변화, 즉 육체적 삶이 정신적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영혼불멸의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喪葬 禮俗으로 발전하였다. 이미 최초의 인류로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山頂洞人의 장례 유적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신 주변에 뿌려진 붉은 색의 철광석 분말을 들 수 있는데 붉은 색은 선혈을 상징하며 피는 생명의 근원과 영혼이 육체를 의탁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시신 주변에 뿌려진 붉은 색의 철광석 분말은 망자에게 새로운 혈액을 공급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망자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긴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거나 혹은 망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였다.¹⁰⁾

영혼의 불멸은 고대 씨족 사회의 보편적 관념이었다. 영혼은 사망 즉시 피안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시신 주위를 배회한다고 믿었다.¹¹⁾ 만약 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매장하기 전

9) 隋開皇十一年, 大府寺丞趙文昌忽暴卒. 唯心上微煖, 家人不敢斂, 後復活, 說云: “吾初死, 有人引至閻羅王府, 王問曰: ‘汝一生已來, 作何福業?’ 昌答云: ‘家貧, 無力可營功德, 唯專心持誦《金剛般若經》.’ 王聞語, 合掌低首, 讚言: ‘善哉! 汝既持《般若》功德甚大.’ 〈後略〉” ([宋] 李昉 撰,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 卷102 〈趙文昌〉, 서울: 학고방, 2001, 66~67쪽.)

10) 공병석, 《예기 상례의 인문관》, 서울: 학고방, 2013, 21~23쪽 참조.

에 잘 보존된 시신으로 배회하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허황되고 황당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인용한 조문창의 고사를 비롯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장면은 사망 후에도 바로 매장을 하지 않고 몇 일간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특히 《禮記·問喪》은 이러한 풍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죽은 지 3일이 지나 염하는 것은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흘이 지난 후에도 살아나지 않으면 이것은 또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니, 자식의 마음 또한 더더욱 쇠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 집에서 준비해야 하는 상사의 비용과 의복 등의 기구들도 갖추어둘 수 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친척 또한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인은 3일로 판결하여 예법을 만든 것이다.¹²⁾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익숙한 三日葬, 問喪 등을 비롯한 장례 문화의 기원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망자를 기리고, 이별을 준비하는 의미도 지닌 유가적 장례 절차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지만 시신을 염하기 전 몇 일간의 시간이 망자의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는 염원의 반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망자가 다시 소생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영혼이 다녀왔던 어딘가의 공간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호기심과 상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념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승과 저승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망자가 다녀왔던 저승에서의 경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승 사람들에게는 수명을 연장하고, 현세의

11) 같은 책, 28쪽.

12) 故曰三日而後斂者, 以俟其生也. 三日而不生, 亦不生矣, 孝子之心亦益衰矣. 家室之計, 衣服之具, 亦可以成矣. 親戚之遠者, 亦可以至矣. 是故聖人爲之斷決以三日爲之禮制也. ([元] 陳澧 編, 정병섭 역, 《禮記集說大全·問喪》, 서울: 학고방, 2016, 125~126쪽.)

복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었을 것이다.

저승은 완전한 상상의 산물이지만, 저승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비현실적 공간도 없을 정도로 문헌 자료나 시각 자료 속에 하나의 전형으로 구축되어 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저승만큼은 상당히 고전적 형상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 모습은 전형성을 띤다.¹³⁾

예컨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흔히 저승사자로 알려진 누군가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거나,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야 할 곳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 사후 세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나라 말기에는 《시왕경》의 편찬과 함께 종래의 七七齋에 사후 백일·1년·3년이 되는 날을 더해 모두 열 번의齋를 지내는 시왕신앙이 성행하였다. 시왕은 인도의 염라왕이 중국에 들어와 도교의 泰山府君과 결합한 뒤 인간 세계의 관료 계급에 따라 10명의 시왕으로 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冥府를 다스리는 시왕으로부터 생전의 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¹⁴⁾

앞서 인용한 조문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조문창은 저승사자로 생각되는 누군가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고 살아생전에 행한 선한 일이 무엇이었던지 심문을 받는다. 이와 유사한 구조의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염라대왕¹⁵⁾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아마도 시왕¹⁶⁾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 저승세계에서의 심판의 주체

13) 김정숙, 〈韓中 저승 체험담 속 저승 묘사와 사상적 경향 비교〉, 《민족문화연구》 제59호, 2013, 347쪽 참조.

14) 구미래, 《사십구재》, 서울: 민족사, 2010, 48~52쪽 참조.

15) 염라대왕은 원래 인도 고대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로서 죽음을 주재하고 죽은 자를 지배하는 왕 야마이다. 야마왕은 불교에서도 저승을 관장하는 신인데 한역본 불경에서는 염라대왕으로 번역된다. 염라대왕은 모든 인간의 수명이 기록된 운명의 책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승의 중생들을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는 거울로 이승을 살펴본다. 죽음을 맞이한 인간에게 사자를 보내 데려온 후 그에 따르는 상과 벌을 내린다. (차창룡 지음, 《인도신화기행》, 파주: 북하우스, 2007, 99~105쪽 참조.)

16) 《시왕경》에서 일컫는 저승의 열 명의 왕(冥府十王)은 49일 간 망자를 재판

를 염라대왕으로 단순화한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염라대왕이 인간의 죽음을 관장한다고 하는 관념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던 듯하다. 청대 필기소설집인 《聊齋志異》에서 어느 기인이 “사람이 죽었다면서 나한테 살려내라니, 내가 무슨 염라대왕이라도 되는 줄 아나?”¹⁷⁾라고 한 말에도 이러한 관념이 잘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문창의 이야기 속에는 죽음과 관련된 중국 고대의 관념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것들은 전래된 불교의 관념과 합쳐 새로운 형식의 관념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 대한 신앙이다. 염라대왕과 조문창의 대화에서 조문창이 평생 《금강경》을 믿고 외운 것밖에 없다고 하자 염라대왕은 돌연히 그에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온다. 《금강경》을 믿고 외웠을 뿐인데도 저승에서 극도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다른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무슨 공덕을 세웠는가?”

“오직 《금강경》 한 번을 베껴 썼습니다.”

염라대왕이 즉시 합장하며 말했다.

“저승에서는 《금강경》을 최상의 공덕으로 부르는데 그대가 능히 베껴 쓸 수 있다면 그 복업이 적지 않을 것이요.”¹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李丘一은 저승의 불경들 속에서 자신이 베껴 쓴 《금강경》을 찾아내어 자신이 말한 사실을 증명하고 풀려나게 된다. 그

하는 秦廣王·宋帝王·五官王·閻羅大王·變成王·泰山王·平等王·都市王·五道轉輪王을 가리킨다. (허암, 《불교에서의 죽음 이후, 중음세계와 육도윤회》, 서울: 예문서원, 2015, 62~78쪽 참조.)

17) 人死而乞活於我, 我閻羅耶? (張友鶴 輯校, 《聊齋志異·畫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122쪽.)

18) 王曰: “曾作何功德?” 云: “唯曾造《金剛經》一卷.” 王既合掌云: “冥間號《金剛經》最上功德, 君能書寫, 其福不小.” ([宋] 李昉 撰,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113~114쪽.)

역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남은 생애 동안 불경을 백 수십 권 베꼈다고 한다. 이 대화의 내용은 단지 불경을 한 번 베껴 쓴 공덕이 죽음으로부터 소생을 가능하게 할 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공덕을 쌓는 일이 아주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님을 언명하고 있다.

다음은 산 자와 저승사자가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이다.

竇德玄은 어떤 사람이 강가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모습은 초췌했고 작은 손수건을 든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두덕현이 말했다.

“해가 곧 기울면 더는 강을 건널 배가 없을 것이다.”

두덕현은 즉시 명령을 내려 그를 태우도록 했다. 종류 정도에 이르러 그 사람이 허기져 있는 것을 알고 또 그에게 밥을 주었으며, 잠시 후 배는 곧 강 건너에 도착했다. 두덕현이 말을 타고 떠나려는데 그 사람도 곧 따라서 몇 리를 갔다. 두덕현은 이 사람을 이상하다고 여겨 그에게 물었다.

“지금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저승사자입니다. 지금 양주로 가서 竇大使를 잡아갈 것입니다.”

두덕현이 물었다.

“그 大使의 이름이 무엇인가?”

저승사자가 말했다.

“이름이 德玄입니다.”

두덕현이 놀랍고 두려워 말에서 내려 절하며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책을 청하자 저승사자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배에 태워주었고 다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잠시 놓아줄 테니 공이 서둘러 《금강경》을 천 번 염송하면 그때 와서 구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남짓 지나 불경을 염송한 횟수가 충분해지자 그 저승사자가 과연 다시 와서 말했다.

“불경을 염송한 횃수가 충분하니 다른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역시 저와 같이 가서 염라대왕을 뵈어야 합니다.”

이에 두덕현이 베개를 베자 숨이 끊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소생했다.”¹⁹⁾

수명이 다한 인간을 소환하기 위해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저승사자는 보통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자신의 임무 수행에 충실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저승사자는 꽤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음식을 주고 배를 태워준 두덕현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죽음을 앞두고 된 두덕현은 저승에서의 벌을 피하기 위해 《금강경》을 천 번 염송했다. 그것은 평소 지극한 불심으로 《금강경》을 신봉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계교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중국의 고대 관념이 베어들어 있다. 그것은 바로 두덕현이 저승사자에게 베푼 음덕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 구제의 수단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야기 속에서 《금강경》의 공덕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태평광기·보응》 《금강경》 편에 수록된 죽음과 소생을 다룬 고사 32조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저승으로 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자기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게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고대인들의 영혼불멸에 대한 생각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망자가 저승에 도착해서 접하는 다양한 지옥의 모습은 고대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

19) 竇德玄見岸上有一人，形容憔悴，攀一小樸坐於地。德玄曰：“日將暮，更無船渡。”即令載之，中流覺其有飢色，又與飯，乃濟。及德玄上馬去，其人即隨行，已數里。德玄怪之，乃問曰：“今欲何去？”答曰：“某非人，乃鬼使也。今往揚州，追竇大使。”曰：“大使何名？”云：“名德玄。”德玄驚懼，下馬拜曰：“某即其人也。”涕泗請計。鬼曰：“甚媿公容載，復又賜食。且放，公急念《金剛經》一千遍，當來相報。”至月餘，經數足，其鬼果來，云：“經已足，保無他慮，然亦終須相隨見王。”德玄於是就枕而絕，一宿乃蘇。〔宋〕李昉讚，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102~103쪽.)

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물론 이 2조목의 고사를 포함한 나머지 이야기들 역시 앞에서 이미 인용한 몇 가지 이야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사경, 독송, 보시 등을 막론하고 《금강경》과 관련한 이승에서의 공덕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이다.

이 이야기들은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느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불합리한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중국 고대의 관념에서 ‘수명의 연장’ 수단이었던 음덕이 완전히 《금강경》과 관련된 공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Ⅲ. 《금강경》에 대한 대중적 믿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죽음 혹은 사후 세계에서 받게 될 지옥에서의 형벌 등등 일 것이다. 이런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 삶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관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관념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 것으로 중국 고전의 서사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불문율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선행인지 악행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단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평광기·보웅》 《금강경》 편에 수록된 이야기들에서 요구되는 선행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것은 《금강경》을 신봉하는 마음이 독실하고 사경, 독송, 보시 등의 업을 쌓은 사람이라면 죽음으로부터 소생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냥을 좋아하던 易州參軍 田氏의 이야기가 있다.

전씨는 사냥 중에 우연히 얻은 《금강경》을 2천 번도 넘게 염송했는데, 그렇다고 사냥을 멈추진 않았다. 사냥은 죄 가운데 가장 죄질이 무거운 살생²⁰⁾을 금하는 계율을 어긴 것이니, 전씨의 죄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것이다. 훗날 전씨가 병으로 죽은 후에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염라대왕이 전씨에게 이승에서 무슨 복된 일을 했냐고 물었다.

전씨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재차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이승에 있을 때 易州의 가시나무 위에서 《금강경》을 얻어 2천여 번 염송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죄를 없앴도다.”²¹⁾

염라대왕은 전씨에게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고, 물론 전씨는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금강경》을 염송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강한 면죄부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태평광기·보응》 《금강경》 편의 이야기들은 거의 모두가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요소로서 《금강경》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금강경》의 이런 영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금강경》은 중국의 선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의 선종은 인도에서 건너온 菩提達磨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달마의 禪法은 범부이든 성인이든 누구에게나 있는 眞性を 찾는 것이다. 이 진성은 비록 거의 언제나 헛된 생각인 번뇌에 의해 덮여있지만, 그 헛된 생각을 버리고 진성으로 돌아가는 수행만 한다면 진리와 하나가 되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 諸罪中, 殺生甚重. ([宋] 李昉 讚,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66쪽.)

21) 王問在生作何福業, 田氏云: “初以畋獵爲事.” 王重問, 云: “在生之時, 於易州棘上得《金剛經》, 持誦已二千餘遍.” 王云: “正此滅一切罪.” ([宋] 李昉 讚,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140쪽.)

달마의 이런 선법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5대조 홍인(602~675)에 이르러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홍인은 이전의 핵심 경전인 《楞伽經》을 버리고 반야 사상의 경전인 《금강경》을 취한다. 《六祖壇經》에 따르면 6대조 혜능(638~713)이 홍인을 찾아간 것은 어떤 사람이 읊은 《금강경》의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살아있게 하라(應無所住而生其心)”는 구절 때문이었다. 이를 들은 혜능이 그 내용을 궁금해 하자 홍인에게 찾아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는 홍인이 《금강경》을 중심으로 폭넓게 교화를 전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²²⁾

이 시기에 선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들은 일정한 산원에서 선법을 전하는 한편, 그는 빠르고 큰소리로 佛號를 부르는 간단하고 편리한 禪法을 채택했다. 그 결과 문도들이 천 여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당대와 송대를 거치는 동안 선종을 중국의 거대한 종파로 자리 잡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혜능이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금강경》을 불법을 전하는 경전으로 채택하였다. 혜능에서부터 교세를 확장한 선종의 영향으로 수당시기를 거치면서 《금강경》은 경전 중의 최고로 자리 잡으면서 널리 유전된다.²³⁾

《금강경》은 《大般若波羅密多經》 가운데 제577권 《能斷金剛分》의 단행본이다. 402년 구마라집이 《금강경》을 번역한 이후 장안을 중심으로 불교도들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이후 다양한 번역본과 주석들이 나왔으며, 황제의 각별한 보호 아래 불교도와 일반 민중들은 경문을 독송하여 공덕을 쌓고 《금강경》의 신기한 영험을 널리 알리는 데에 열중하였다. 이에 따라 《金剛經靈感錄》·《金剛經持驗記》·《金剛證果》·《金剛果報》 등을 비롯하여 《금강경》과 관련된 영험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금강경》은 점점 민중들의 생활 속으로 흡수되었고 불교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경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

22) 자현, 앞의 책, 283쪽.

23) 양혜이난 지음, 원필성 옮김, 《불교사상사》, 서울: 정우서적, 2008, 464~467쪽 참조.

다.²⁴⁾

《금강경》의 영험함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들은 주로 수당 시기에 쓰였다. 그러나 위진남북조 시기에도 이미 이른바 ‘釋氏輔教之書’²⁵⁾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南朝의 관세음 계열의 소설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독자로 하여금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하며, 어떤 어려움에 부딪쳐도 일심으로 《觀世音經》을 읽으면 나쁜 일도 좋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관념을 형성하게 했다.²⁶⁾ 또한 당시에 정성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것은 자신의 신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금강경》 독송에 대한 믿음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강경》의 영험성에 관련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15장 경을 수지하는 공덕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여래는 이 사람들이 해아릴 수 없고 말 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²⁷⁾

제24장 경전 수지가 최고의 복덕

수보리여!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사구게 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

24) 魏鑫, 《隋唐時期金剛經應驗故事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2020, 11쪽.

25) 魯迅, 앞의 책, 32쪽.

26)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2005, 470쪽.

27) 十五. 持經功德分: 若有人, 能受持讀誦, 廣爲人說, 如來悉知是人 悉見是人 皆得成就不可量不可稱無有邊, 不可思議功德. (지안 강설, 《금강경 바로 읽기》,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161~162쪽.)

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²⁸⁾

이 내용들은 모두 《금강경》을 지니고,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바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12장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

또 수보리여! 이 경의 四句偈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²⁹⁾

四句偈³⁰⁾를 말하는 것만으로 하늘, 인간, 아수라들의 공경을 받는다는 구절은, 앞에서 이미 인용한 《태평광기》에 묘사된 살아생전 《금강경》을 읽었던 망자를 대하는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들의 태도가 극히 공경스러웠던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위에 인용한 것들은 모두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이 얼마나 무량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전체 5,180자로 이루어진 경문에서 《금강경》을 지니고 독송하는 행위

- 28) 二十四. 福智無比分: 須菩提, 若三千大千世界中, 所有諸須彌山王, 如是等七寶聚, 有人, 持用布施, 若人, 以此般若波羅密經, 乃至四句偈等, 受持讀誦, 爲他人說, 於前福德, 百分不及一 百千萬億分, 乃至算數比喻, 所不能及.(같은 책, 253~255쪽.)
- 29) 十二. 尊重正教分復: 此須菩提, 隨說是經, 乃至四句偈等, 當知此處, 一切世間天人阿修羅, 皆應供養, 如佛塔廟, 何況有人盡能受持讀誦, 須菩提, 當知是人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 若是經典所在之處, 則爲有佛若尊重弟子.(같은 책, 127~129쪽.)
- 30) 偈는 범어의 가타(ga-tha)에서 온 말로서 부처의 공덕이나 교리에 대한 찬미를 요약한 노래글귀이다. 대개 네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四句偈라고 다.(홍정식 역해, 《반야심경·금강경·법화경·유마경》, 서울: 동서문화사, 2016, 121쪽.)

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만 600여자에 달한다. 이는 불교 반야 정수로서의 《금강경》 내용 그 자체에서 경전의 독송을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³¹⁾ 《금강경》은 자수와 내용 그 자체가 독송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금강경》이 성립되어 널리 보급되던 그 당시에 불교도들이 이 경을 몸에 지니고 독송했음을 알 수 있다.³²⁾ 이러한 영향으로 《금강경》의 독송이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과 실천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것은 《태평광기》에서 살펴본 《금강경》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방증해준다.

독송을 통한 《금강경》 신앙은 중국 뿐 아니라, 신라에서도 존재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 와서는 신앙적 측면이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의 신앙과 의례의 일환으로 ‘금강경 도량’을 설치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이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강설하는 법회로서 기우나 천재지변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열렸다.³³⁾ 이런 것을 보면 금강경 독송 자체가 신앙과 의례를 강조한 功德적 측면에서의 신앙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독송은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까지도 사원의 불사에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중생을 교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로 정착되었으며, 다분히 功德신앙을 강조하는 것³⁴⁾으로서 수당 시기 중국에서의 《금강경》 독송에 대한 신앙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강경》을 읽을 줄 모르고, 그 뜻도 모른다면 공덕을 쌓을 수 없을까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중국의 문맹률이 더욱 심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 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금강경》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정진·수행할 수 있는 계층

31) 魏鑫, 앞의 논문, 16쪽.

32) 정천구, 《금강경독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작가서재, 2009, 194쪽.

33) 채상식, 〈13세기 전반기 간행한 금강경 사례들과 사상적 의미〉, 《石堂論叢》 제61집, 2015, 116~117쪽.

34) 같은 논문, 131~132쪽 참조.

은 고위 관료를 비롯한 식자층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사원의 불사에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금강경》 독송에 따르는 논의³⁵⁾을 상기시킨다. 즉 《금강경》의 뜻을 알고 읽을 것인가, 혹은 뜻을 몰라도 읽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인가의 논의이다.

《태평광기·보응》 《금강경》 편에 수록된 고사들 속 인물들 역시 주로 관리나 문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금강경》을 읽었던 주체 역시 尚書, 節度使, 縣尉, 校書郎 등의 고위 관리나 중하층 관리 외에도 시녀, 여행객, 문인, 富者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고위 관리나 문인이었다는 점은, 비록 《금강경》이 5천 여 자에 불과하지만 반야사상의 정화로서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모르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금강경》에 대한 신앙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당나라 元和 연간에 康仲威이라는 자가 해동으로 갔다가 수 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을 그리워하던 모친은 어느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염송하면 아들이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들었다.

그 모친은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신 금강경을 베껴 쓰게 하고는 곧장 집 기둥을 뚫어 그 안에다 금강경을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옷칠을 하여 봉하더니 아침저녁으로 경의를 표하여 예를 다했다.

하루는 벼락이 크게 치고 집 기둥이 뽑혔는데, 한 달 뒤 과연 아들이 비단주머니에 큰 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모친에게 절을 했다.³⁷⁾

35) 이성수, 〈금강경을 읽으면 공덕이 있는가〉, 《불교신문》, 2021.10.29.

36) 楊夏麗, 〈《太平廣記》所載《金剛經》靈驗故事研究—以唐代爲例〉, 西北大學中國史碩士學位論文, 2016, 35~36쪽 참조.

37) 母不識字, 令寫得經, 乃鑿屋柱以陷之, 加漆其上, 晨暮敬禮. 一夕, 雷霆大震, 拔此柱去, 月餘, 兒果還, 以錦囊盛巨木以至家, 入拜跪母. ([宋] 李昉 撰, 김장환·

그리고 나서 아들이 말하기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 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서 나무가 떨어지자 그 나무를 붙잡고 겨우 해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과연 그 기둥은 모친이 《금강경》을 넣어 두었던 그 기둥이었으며,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의 《금강경》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 갔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글을 읽지 못하는 노모는 어쩌면 고대 중국의 일반 백성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글도 읽지 못하고 그 뜻도 모르지만, 단지 《금강경》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영험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것은 《금강경》의 뜻을 모른다 해도 “정성스러우면 감동하고, 감동하면 보응한다(至誠必感, 有感必應)”³⁸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강경》에 대한 대중적 믿음이 극점에 이르렀음을 목격하게 된다.

IV. 나오는 말

죽음을 통해 저승을 경험하고 다시 이승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꿈꿀 수 있는 상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후 소생의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들의 중점이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망자를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동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야기들은 죽은 자도 되살리는 기적 같은 일의 개연성이 바로 이승에서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있을 내세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이것은 삶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에 중점을 두는

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314~315쪽.)

38) 같은 책, 179쪽.

종교에서 죽음 이후를 위한 강한 믿음과 일상적 수련을 요구하는 것이나, 또 삶의 과정에 중점을 둔 유가에서 현실에서의 일상적 실천을 강조하는 유가적 삶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³⁹⁾ 그러므로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 속에서 죽음으로 인해 저승을 경험한 망자들은 살아생전에 쌓은 공덕으로 이승으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금강경》을 신봉하고 독송하는 공덕을 쌓았다는 것이다. 종교적 의도와 성향이 짙은 서사작품은 소설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야기의 구성이 다소 단순하고 비슷한 구성을 갖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술적인 가치는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일종의 문화적 함의를 지닌 소설로서 역시 소설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⁰⁾

이 작품들은 전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 특히 《금강경》 신앙에 대한 수당 시기의 사회 현상과 사람들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이야기들이야말로 실제 《금강경》 신앙을 강조하는 여느 언설이나 수행법보다도 그에 대한 매우 깊은 믿음과 수행을 유도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야기의 힘이야말로 《금강경》이라는 경전 자체보다 더 믿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수많은 불교 경전 가운데 《금강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비교적 문체가 간명하고 분량도 많지 않아 지니고 읽기가 편한 경전이다.⁴¹⁾

39) 김현·김월희, 앞의 책, 335~337쪽 참조.

40) 李劍國, 앞의 책, 470쪽.

41)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혀져 온 경전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불경이다. 선종의 법맥을 계승한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유독 이 경전 하나만 소의경전으로 지목해 놓았다. 이 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초기였으며, 널리 유통된 것은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경의 독송을 널리 권장해 온 이후로 더욱 많이 유통되었다. (지안 강설, 앞의 책, 328~329쪽 참조.)

본고에서 다룬 《금강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금강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공덕을 쌓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금강경》의 내용 자체에도 그것을 몸에 지니고 읽는 것에 공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는 만큼 여러 경전 가운데에서도 《금강경》의 독송은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심오한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금강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덕을 쌓는 방법은 수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금강경》 독송에 힘쓰게 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태평광기·보응》 《금강경》 편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금강경》이 중국에 전래되어 구마라집에 의해 번역되어 보급된 이래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들 작품 속에서 묘사된 《금강경》의 수용 방식은 많은 대중들에게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이 중국 고대의 관념에서 ‘수명의 연장’ 수단이었던 음덕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내용의 해독 유무를 떠나 《금강경》을 지니는 것 자체가 무량의 공덕임을 설파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국인들의 《금강경》에 대한 대중적 믿음이 극점에 달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종임, <《夢占逸旨》에 드러난 壽命 인식>, 《中國學》 제74집, 2021.
 공병석, 《예기 상례의 인문관》, 서울: 학고방, 2013.
 구미래, 《사십구재》, 서울: 민족사, 2010.
 김정숙, <韓中 저승 체험담 속 저승 묘사와 사상적 경향 비교>, 《민족문화연구》 제59호, 2013.
 김현·김월희, 《무엇이 좋은 삶인가》, 서울: 민음사, 2020.

- 양혜이난 지음, 원필성 옮김, 《불교사상사》, 서울: 정우서적, 2008.
- [宋] 李昉 講,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 卷102, 서울: 학고방, 2001.
- 이성수, 〈금강경을 읽으면 공덕이 있는가〉, 《불교신문》, 2021.10.29.
- 이필원, 〈초기불교의 임종관 고찰〉, 《선문화연구》 제14집, 2013.
- 任啓愈, 전택원 역, 《中國哲學史》, 서울: 까치, 1990.
- 자현, 《자현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 서울: 불광출판사, 2018.
- 정성훈, 《사람을 움직이는 100가지 심리법칙》, 서울: 케이앤제이, 2011.
- 정천구, 《금강경독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작가서재, 2009.
- 지안 강설, 《금강경 바로 읽기》,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 [元] 陳澧 編, 정병섭 역, 《禮記輯說大全·問喪》, 서울: 학고방, 2016.
- 차창룡 지음, 《인도신화기행》, 파주: 북하우스, 2007.
- 채상식, 〈13세기 전반기 간행한 금강경 사례들과 사상적 의미〉, 《石堂論叢》 61집, 2015.
- 허암, 《불교에서의 죽음 이후, 중음세계와 육도윤회》, 서울: 예문서원, 2015.
- 홍정식 역해, 《반야심경·금강경·법화경·유마경》, 서울: 동서문화사, 2016.
- [唐] 房玄齡 等撰, 《晉書》卷82 〈干寶傳〉, 北京: 中華書局, 1993.
-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2005.
- 魯迅, 《中國小說史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清] 蒲松齡 著, 張友鶴 輯校 《聊齋志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魏鑫, 《隋唐時期金剛經靈驗故事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2020.
- 楊夏麗, 《〈太平廣記〉所載〈金剛經〉靈驗故事研究-以唐代爲例》, 西北大學中國史碩士學位論文, 2016.
- [宋] 朱熹 撰, 《中庸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5.

<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e *Diamond Sutra* to people since it was introduced to China and translated and disseminated by Kumarajip through the various stories of the *Diamond Sutra* from the *TaiPingGuangJi- Retribution* episode. The way of accepting the *Diamond Sutra* described in these works was also a way of salvation for many people to overcome the limits of life and death. Analyzing these works, we confirmed that the merit of reciting the *Diamond Sutra* is replacing hidden virtue, which was a means of 'extension of life' in ancient Chinese concepts. Also, in the story preaching that possessing the *Diamond Sutra* itself is an invaluable merit, regardless of whether the contents are understood or not, we could witness that the religious beliefs of the Chinese people about the *Diamond Sutra* reached the climax.

Key Words : 《금강경》(*the Diamond Sutra*), 《태평광기》(*TaiPing GuangJi*), 구원(Salvation), 삶과 죽음(Life and Death), 보응(Retribution), 독송(Recitation), 공덕(Virtue and Merit), 신앙(Religious belief)